



어항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 두마리

말강, 과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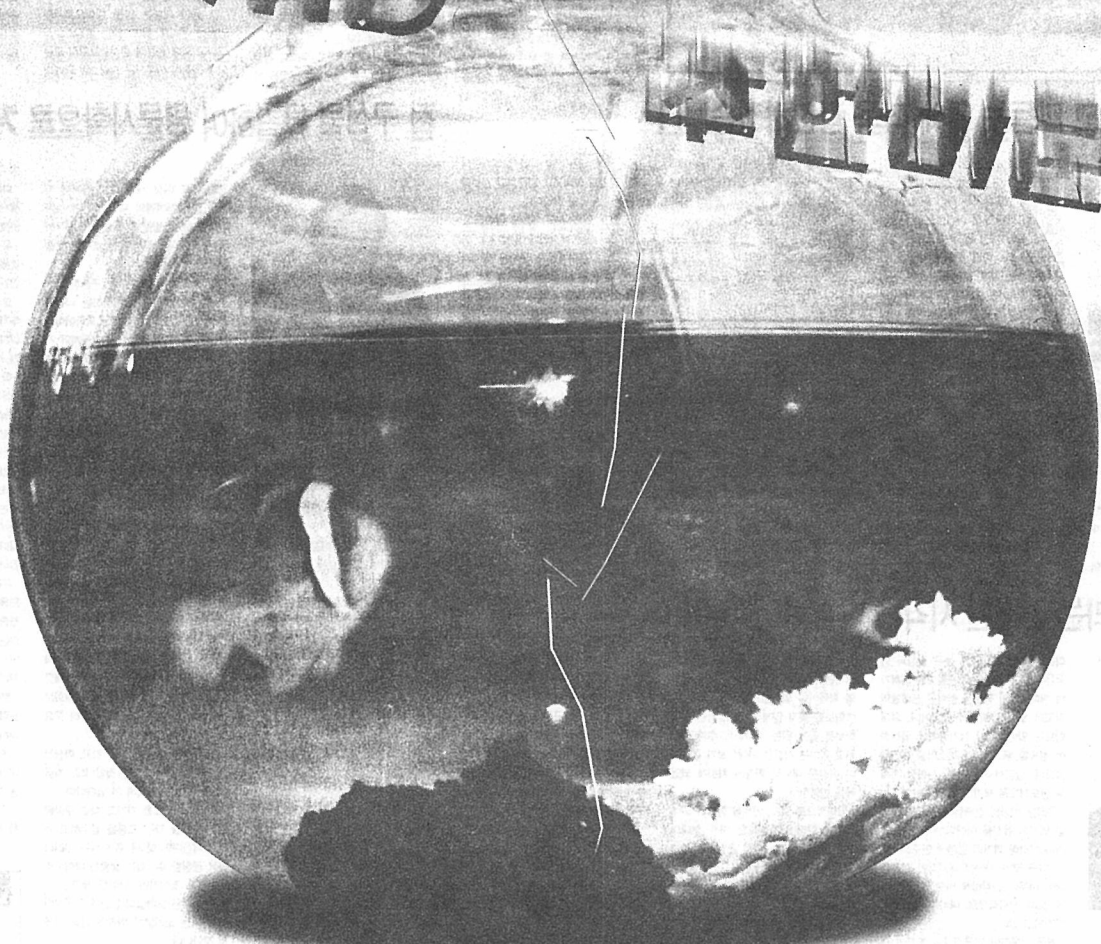
색깔이 더러운 서로의 모습에
한때는 오해하고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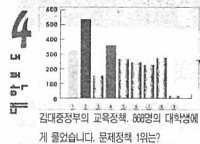
하지만 이틀을 함께했습니다
서로 마주보며 그리워왔던걸요

어항을 둘러싼 것들은
모처럼 찾아온 어항의 평화를
덜어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항의 유리가 깨지면
우리 모두는 살 수 없습니다
더욱 함께 해야 할 때입니다

어항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 두마리





4. 학생들은 박원경 이사장의 복귀 이후, 재정을 탈락하고 수백억, 민주노동당 선출 등 학내 바리 헤집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직접 학생대회를 열어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6.7. 원도도의 전경이 바뀌고 있다. 미국의 MNO-TMO 전학을 분석하면 보인다.

8. 1, 2, 3으로 불리고 있는 건물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개교특적으로 우리들 연구회와 함께 학교 건물들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9. 이대학도 40년의 역사 속에 물려받은 시간과 가치를 만나다.

11. 아직도 우리 주위엔 복음들이 돌아가지 못한 비현실적 상황들이 많습니다. 수습 선의 복음과 지고 나서 남은 건 없고 모든 복음들이 인간이 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그들이 '복음'이라는 모험을 만들었다. 다. 감동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대중정부 3년 대학 교육정책 평가 설문조사

교육정책 '문제있다'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교육기회 불균형 - 41%

교육개혁을 국가개혁의 근본으로 천명하며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자유시장 경쟁을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세계수준의 대학원 중심대학과 지역 우수대학 육성 등을 표방하며 두뇌한국21(BK21) 모집단위 정책화, 국립대 발전계획 안 등을 추진한 교육개혁은 '적지성론'의 무한 경쟁시대를 예고하며 6명의 교육부장관을 거칠별로 교체, 교육 안팎으로 우려와 비판받고 있다. 이에 전국대학신용기자연합(회장 고운정 부산대 신문사 편집국장, 이하 전대기협)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김대중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이 어떻게 평가되고 적용되고 있는 지 알아보기로 전국 대학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대학생 8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지 가운데 개발발로는 인준계 60.9%, 자연계 38.9%, 오류 0.1%이고 성별별로는 남자 46.3%, 여자 53.6%, 오류 0.1%로 구분된다.

전집자주

장국 대학생 2명 가운데 1명은 지난 3년간 김대중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 8% 확보를 대신 공약으로 약속했던 김대중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8.3%(507명)가 문제 있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현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긍정적이다'고 답변한 학생들은 8.7%(73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의 주된 원인에 대해 48.4%(429명)의 학생들은 '교육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꼽아 교육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이외에 '학문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기초학문을 붕괴시키는 특권층이 집중지인 정책(19.3%)', '교육의 상업화와 공공성 상실을 유발하는 시장논리 도입'(16.1%) '대학 사립화를 조장하는 학벌 중심주의(13.9%)'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BK21과 국립대 발전계획(이하 국발)의 일방적 시

▶ 4면으로 이어짐

학개위, 문화예술대 학부제로 방향 전환

윤인배문화 예술대학(가칭)의 세부전공이 학부제로 개편을 앞두고 있다.

문화예술대학은 제정 시한인 지난 13일(금) 문화예술대학 세부전공을 과의 형태로 결정했지만, 교육부 정책에 따라 학부제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유재원(언어학) 교수는 "교육부의 논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학사구조변경위원회와 추진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무위원회가 오는 19일(목)까지 문화예술대학의 신설에 따른 후속과제 △자유전공제 신설에 따른 후속 연구 △정신대학, 어학반이 학사개편에 따른 학사방식의 초안을 수

립할 계획인 가운데 학사구조개선위원회는 지난 11일(수) 연거미 이후 개위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소위원회는 학생대표가 참가해 윤인배문화 예술대학(가칭)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로서 지난 등록금협상위원회에서 결성기로 합의했다.

현재 구성은 기초처장 한형근(이태리)교수, 경상대학장 이형철(경명정보)교수, 외국학종합 연구센터 최영수(포토컴)교수가 학교총 대표로, 서유림대학총장 최정현(이태리)교수, 경제학과 학생회장 이진우(99), 전자물리학과 학생회장 이종원(96)군이 학생회 대표로 돼 있다.

대학부



대우차 매각 반대! 김대중 정권 반대!

지난 14일(토) 민주노동당 주최로 열린 부평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대우차의 GM 매각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 학생들은 지난 10일 노조사무실에 진입하려는 폭력집단인 경찰과 정부에 항의하며, '살인적인 폭력반정, 정권교체, 문제, 김대중 정권 퇴진'을 외쳤다.

전학대회 결렬, 인준절차는 진행돼

전학대학대표자대회(전학대회)가 지난 12일(목) 인문과학관 301호에서 열렸다. 재적인원 170명중 88명이 참가해 2년만에 성사된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총학생회 특별기구와 기본기구, 자치기구에 대한 인준 △총학생회 자치회비 분배인 확정 △신입생 교육부행 평가의 순서로 진행했다. 하지만, 회의도중 참가인원이 줄어 의결안건은 하루 뒤 열린 13일(금) 전학대회에 상정됐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16일(수)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첫 순서로 진행된 특별기구 인준에서, 특별기구 중 기본기구로 학생복지위원회,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가, 부속기구로서 모의재단연합, 생활도서관, 도서관학생위원회가 특별기구 중 계열기구 인 여학생위원회, 문예발달위원회 순으로 발제와 질문이 이어졌으며, 모든 기구가 인준받았다. 이날 학생복지위원회 선거에서 윤상호(사회·신문방송 93)군은 재적인원 87명 중 72표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대학부

24일(화) 대학평의원회 열려

대평의 실질적 의결 기구화, 등록금 책정위원회 건설 논의

오는 24일(화) 등록금 책정위원회 건설과 대학평의원회 실질적 의결기구화를 안건으로 총장, 기초처장, 노조위원장, 총학생회장 등이 참여해 대학평의원회가 열린다.

지난 4일(수) 총장과 윤인배문화 예술대학의 협상식 거행한 핵심 10대 요구안 중 대학평의원회의 실질적 의결기구화는 이 기구가 지난 98년 학생, 직원, 교수로 구성된 민주적 제도이나, 민주적인 토론과 결정이 아닌 학교회의의 결정을 관철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로 재단됐다.

윤인배문화 예술대학의 학생대표 3인, 직원, 교수, 학교경영책임자, 재단 이사로 구성된 2/3로 찬성이나, 만장일치의 결정방식을 재단했다.

현재 학교총은 총학생회칙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진다. 등록금 책정위원회 건설안은 예산의 책정에

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학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식기구를 건립하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이송범(인문·철학 00)군은 "현재의 대학평의원회의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서 결정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등록금 책정위원회 역시 1년 동안 상시적으로 열려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경기자 seoulwater63@hannam.net

중간고사 관계로 다음신문은 5월 7일(화)로 발행됩니다

오디화보

대나무를 보듯

외대학보를 보듯

울굴은 대나무로 만든 피리만이
깊은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46년 정문직필 그 한길만을
걸어온 외대학보.
앞으로도 독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외대학보가 되겠습니다.

민족자주론
오디화보

의자 공(公)권의 도

▲최고의 수비는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는 것일진대!
모든 무예에 있어 최고의 수비는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는 것이다. 자신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피하는 것 중에도 상이다. 그렇듯 공격의 경우는 상대방이 최상의 수비자일 때 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도'를 중시하는 무예관에선 차사한 것일 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공격과 수비의 부조화가 극대화된 사건이 부평 대우자동차 공장 진압로에서 나왔다. 경찰의 호기를 한껏 이용한 공권력이다. 안대파일, 허파, 손상, 양손 끝질, 안대파일...이러한 병명은 이날 30명의 조합원들이 얻은 공(公)적의 자취였다.

▲잘못 졌다 해서 미안하지 마라!
집대 다수 혐의로 노조조합원들이 들어가려던 부평 대우자동차공장 앞을 지키고 늘어섰던 전투경찰은 노동자 수를 넘어섰다. 게다가 전투경찰은 하비파의 전투복, 특수 클라스트 재질의 방패와 곤봉이 있지 않은가? 이에 반해 상의를 벗은 노동자들은 전의를 싹쓸 수 없었다. 18대의 1회 신화는 열여섯에서 일어난 일. 팔을 부르트려 팔을 파를 타하는 노동자의 진영은 영화 같기도 한데...

▲문제가 생긴다면 시치미 때려!
경찰의 폭력집단이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여론화되자 경찰측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사용한 수법은 민주노동당이 사단법인 반정부에서 발행한 비디오에 의뢰한 영상물을 배포하는 것이었다. 또한, 경찰측이 전국 언론사와 공공기관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장 진입을 시도했던 노동자들이 몇몇 경찰을 강압하고 구타와 욕설을 퍼부었던 것을 알을 수 있어 보복했다는 내용이었다. 법치에는 들어맞았지만 수는 좋지 못했다.

▲공(公)권이라는 권법을 사용하는 양반들이라면 이러한 법칙은 멀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전집장



가상시나리오 - NMD·TMD가 발호된다면?

한반도 전쟁위기, 다시 올 수도 있다(?)

는 한반도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NMD, TMD가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여러 가지로 지적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이 장에 있어서 NMD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NMD보다 빨리 배치될 예정인 TMD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이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TMD 가운데 예정보다 2002년을 전후해서 패트리어트 PAC-3를, 2003년에는 전역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해군지역방어(NAD)를 동아시아에 배치할 경우,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은 이론상으로 완전 무력화될 수 있다. 이것은 북미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미국이 북쪽을 감행하려 할 경우 북한의 보복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1994년 핵위기 당시 북쪽 일부 작전까지 있던 미국이 이를 감행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주한, 주일 미군을 비롯한 미국인의 피해가 너무 클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4년 당시와 TMD의 무기 체계 중 상당 부분이 실현배치된 2003년 이후는 여러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우선 군사력에 있어서 1994년과 2003년 사이에 북한과 북한을 적으로 삼고 있는 한미, 미일 군사동맹간의 격차는 훨씬 커질 것이 확실하다. 또한 주한미군 전력 구조가 육군은 줄어드는 반면, 해군과 공군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이라는 존재가 한편으로는 북한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주한미군의 인명 피해를 우려한 미국으로 하여금 전쟁 결정을 신중하게 만드는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북쪽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이 TMD에 의해 무력화될 경우, 북한은 가장 효과적인 전쟁 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 미국이 막강한 화력을 동원해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키고 남한이나 일본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TMD로 요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설 경우 전쟁 결정이 그만큼 수월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2004년 이전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하지도 않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조차도 대체로 북한이 ICBM을 개발할 수 있는 시점을 2010년 정도로 내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의 정권 교체도 큰 변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몇 가지 최악의, 그러나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들이 뒷받침될 경우 사태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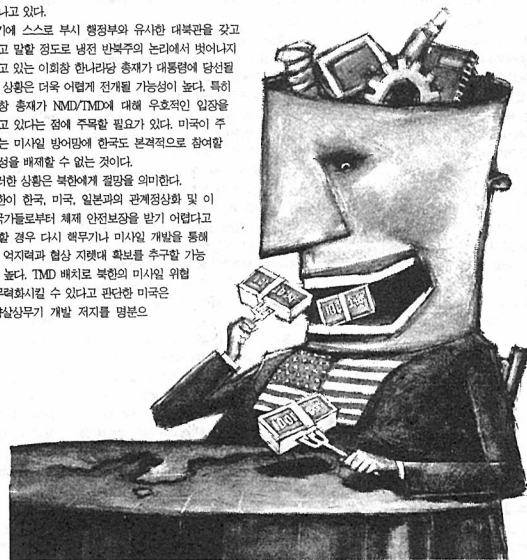
이러한 가정이 현실화되는 데는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고집스러운 집착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다. 우선 부시 행정부가 NMD와 TMD 추진 명분을 잃지 않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계속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이로 인해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남진구조 해체 전략이 답보상태에 빠져들 것이라는 가정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스스로 부시 행정부가 유사한 대북관을 갖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냉전 반북주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상황은 더욱 어렵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회창 총재가 NMD/TMD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도 본격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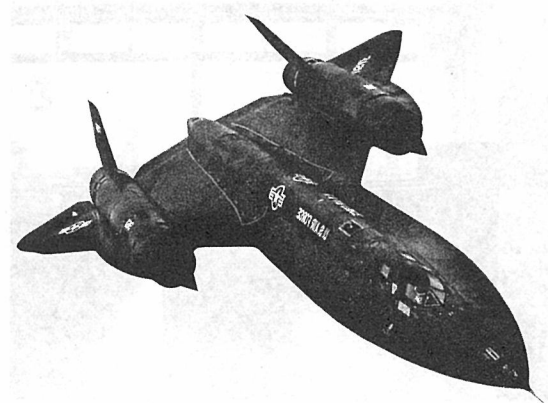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은 북한에게 절망감을 의미한다. 북한이 한국,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및 이들 국가들로부터 체제 안전보장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을 통해 전쟁 억제력과 협상 지렛대 확보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TMD 배치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로 북쪽을 감행할 수 있는 발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NMD 못지 않게 TMD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옥식
(정책네트워크 대표)



정리·김현기자 yes-brown@hanmail.net



들어기머

한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시 행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미사일방어체계(NMD)가 한반도 상황의 핵심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한미 공동성명에서 NMD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탄도미사일방어(ADM) 조약 개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반대 의사를 밝힘으로써 불거진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한반도 역시 NMD문제를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비로소 드러난 것이다.

NMD 논란이 불거지자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이 'NMD 중립론'이나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NMD는 기본적으로 강대국 사이의 문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NMD는 한반도 분단과 적대적 대결의 구조적 원인인 국제적 수준의 냉전을 되풀이하고 있고, 한반도 문제 최대 현안인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명분 삼아 추진되고 있으며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코 강대국들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망은 한반도의 북쪽을 '적'으로, 남쪽을 '보호'의 대상으로 나누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남북안이 공동안으로 이행하는 데 근본적인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남북안이 정권이 아닌 평화로 선언하고,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의 공동점을 찾아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상호간에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일방적인 안보를 추구해온 냉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안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정부가 NMD와 함께 핵의 주둔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에 대해 한국은 불합치 의사를 밝히면서도 TMD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무기체계, 즉 패트리어트 PAC-3와 이지스급 구축함 등을 들여올 계획이기 때문에 논의를 소홀히 하고 있다. 더구나 부시 행정부가 NMD와 TMD를 통합하여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망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한국 정부의 NMD는 유보, TMD는 불참 한다는 지금까지의 입장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

21세기 가장 무서운 공격용 무기

미국정부는 미사일 방어망이 핵무기와 같은 공격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관철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미사일 방어망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들까지 보호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미국이 꾸준히 핵무기를 감축하고 있다는 주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말하고 있는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망은 실현 가능성을 떠나 자국을 중심으로 한 전미국가들과 적대적인 국가들로 양분시킴으로써 발전시대와 유사한 강대국의 대립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핵무기 감축 정책 역시 이미 과도하게 보유한 핵무기의 '양'은 줄이되 '질'은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결코 핵축점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핵무기의 완전 폐기라는 인류 공동체의 요구를 저버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미사일 방어망 그 자체가 공격용 무기는 아닐지라도 각국의 전역구조와 미국의 공격능력을 감안할 때, 이는 21세기의 가장 무서운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있다. 가장 강력하고 많은 수의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을 갖는다는 것은 미국만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보유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은 냉전시대 '불인한' 평화를 가능케 했던 주요 강대국간의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전략에 기초한 공포의 균형을 무너뜨림으로써 미국의 전지구적 패권주의가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러한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핵군비경쟁이 첨예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NMD, TMD에 맞서 핵무기 및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3년의 한반도, NMD보다 TMD가 위험할 수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아끼고 있는 전지구적 무기

NMD·TMD에 대한 의문 네가지

① 도대체, NMD와 TMD가 무엇일까요?

② 국가방어미사일체제라고 풀이되는 NMD는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중층에서 미사일로 요격하여 방위한다는 개념이다.

③ 1983년 레이건행정부가 구상한 스타워즈 계획, 즉 전략방위구상(SDI)이 NMD에 원조이다. NMD는 레이건 정부 당시에 공화당과 민주당간에 분명한 입장차이를 보였지만 한 부시정부 하에서는 수월한 상을 보이고 있다.

④ 거기에 이 주자 제에 대한 의견 접근보다는 정책적 이유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TMD전략방어 미사일체제란 미국을 중심으로 한 NMD체제를 미국의 우방인 일본이나 타이완 또는 한국에까지 확대한다는 개념이다.

NMD는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스타워즈계획 만만치 아니한 것임이 미국내에서 비판받고 있다.

또한, BMX(Ballistic Missile Defense)는 NMD와 TMD를 합친 개념이고, NMD를 거론할 때에 나오는 AIM은 72년 미국과 구소련과의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다. AIM에는 100기 이상의 탄도요격미사일 배치금지, 요격체제건설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어, 미국이 NMD구축을 위해서는 AIM조약을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할 것이다.

⑤ 왜 NMD와 TMD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⑥ 21세기 첫해인 올해 전 세계는 미국의 NMD와 미일동맹의 TMD문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⑦ 우리나라에서도 여야 소경파가 모여 만든 정치개혁을 위한 모임이 NMD문제에 생명을 발표했다. 또 민주총, 참여연대, 전국언론 등 40여개의 시민 사회 단체들은 NMD, TMD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행위원회를 발족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⑧ 북한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자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은 새로운 군비경쟁과 막대한 예산낭비를 유발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지역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이 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⑨ NMD가 한반도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TMD 추진의 명분이 되었으면 북한의 미사일 문제-핵위협 이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는 미국내 강경세력들에게는 그대로 유효하다. 이는 북미 미사일협상 채널로 협회하고 있는 상태다.

⑩ 제 채널은 현재 북한의 미사일 수출 문제에 대한 논의에 한정되어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The image consists of two side-by-side photographs of a debate event. The left photograph shows a woman with long dark hair, identified by the sign on the podium as Gao Yuntong (高允庭), speaking. The right photograph shows a man in a suit and tie, identified by the sign on the podium as Cheng Libin (程利斌), speaking. Both speakers are at a podium with a microphone. The background banners for both events read '中、青年學生討論會' (Middle and Young Students Debate Conference). The left banner also mentions '主辦：全國大學新聞記者聯會' (Organized by: National University News Journalists Association) and '協贊：' (Co-sponsors:). The right banner mentions '主辦：全國大學新聞記者聯會' and '協贊：'.

“동북아내에서 군국주의 · 우경화는 막아야 합니다”

할의 속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한국과 일당정부를 비판하고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하시어 민중연대로써 미국의 패권정부를 막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다.

발표 직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동북아 현안에 대한 다키토론 질문들이 일어났다.

한국측의 '일본의 재무자본이 우경화까지 초래하고 있는 미국의 NMD, TMD 문제의 대응은 무엇이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중국 측은 "동북아 내에서 군순한 위급함을 피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이 단결해 함께 마일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최근 미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 충돌사건에 대해 중국측은 "중·미 관계에서는 미국이 어떠한 태도로 나오느냐에 관한 판단이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로서 군순한 위급감을 낳아서 미국이 정식치 시야와 보상을 이 필요요"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중국의 인식, 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견해 등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새 시 사건에 대한 발언이 토론회에는 특색을 통한 질문 전달과정이 원 할지라도 참된 질문 시문보다는 더욱 보였지만, 시정형인 정지형의 발언면서도 회개에대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외 토론회에 참여한 장의(張維良)장은 "교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이라며, 기개가 달나더라도 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중국학생들과 이야기 해보고 싶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전대건(前) 공명기(公明記)

“한반도 전쟁위기 불식시키는 총체적인 행동으로 나가야”

시 활동, 남북한 정상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비롯한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 새로운 핵 군비경쟁이 우려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비핵지대 운동 전개 등을 중요한 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NMD·TMD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분열된 안팎 전 세계평화운동단체와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펼칠 것이다.

오는 29일 전교조 강연에서 열리는 활동가 대성 워크숍은 시작으로 5일 영국 리즈에서 열리는 국제대의 참가, 8월에는 전 세계 평화운동단체를 초청해 서울에서 국제평화대회를 여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의 바깥에 있다면
반전평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는 조금 엇갈리지만, 이 운동은 결국
에 주어진 철수, 양민화상 징상규명 등의 반미투쟁으로 이어져야만
고 생각한다. 지난해 매항투쟁처럼 NMD·TMD반대는 올해 반미투
쟁의 중심고리로 출발하여 나아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게 하는
촉제적 반미투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유희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전대기련 공동기자단

조선대학교 대학신문
maincc.hufs.ac.kr/~weekly
 구독신청하기

외대학원

비둘기 칠판

남 · 찻음 · 모 집 드음 흥반

마음과

시 · 소설 · 수필 등

흡산의 소리

학내·학외 사안에 대한 외대인의 의견

다다립시다기늘을반어여러부의

기
고
만
장

재발견

건물이름 찾기 - 외대화보와 우리말 연구회가 함께 합니다

딱딱한 건물이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우리 식당건물 앞에서 보지"
"식당건물" 인문과학관을 말하는 거야"
"그래... 1건물"

1건물, 2건물... 서울배움터 각 건물의 이름이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숫자로 불리고 있다. 그 건물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름이 없다면 건물의 정체성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건물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이름이 없다면 건물의 정체성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건물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이름이 없다면 건물의 정체성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오는 20일 개교기념일을 맞이해 본보에서는 우리말 연구회와 함께 서울배움터 63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물이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우리말 연구회가 지난해 학생들로부터 수렴한 이름 후보들을 보기도 설문조사를 만들었다.

우리말 연구회 회장 이범현(상경·경제 00)군은 "외국어와 건물이름에 앞서 우리말을 잘 알아야 하는 외대의 특성에 우리말 건물 이름이 어울린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설문결과 본관은 용을 뜻하는 순 우리말인 '비룡관', 인문과학관은 세계라는 뜻을 가진 '누리관', 시청각교육관은 '소리마을'이 각각 뽑혔다. 그리고 사회과학관도 법대, 사회과학대, 상대가 함께 사용한다는 의미로 '어우름'을

관, 학생회관은 '열린관', 학군단 건물은 '장성관', 대학원 건물은 '참관'을 배우는 곳이라는 의미인 '진리관'으로 그 의견이 모아졌다.

"순 우리말 이름이 좋다", "숫자로 건물명을 알기 어렵다", "건물이름에 의미를 붙인다면 더욱 학교에 애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외대 특성이 묻어나야 한다" 등의 이유로 총응답자 중 79.9%가 위와 같이 이름을 바꾸는 데 찬성했다. 이 밖에 '숫자로 부르는 것은 딱딱하다', '건물의 이미지를 새로워질 것 같다'는 등의 의견들은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 건물이름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족을 반영하고 있다.

염미호관, 김대건관 등의 카톨릭 성지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서강대의 경우 '나산관'이라는 고유어 이름과 그 건물의 역할을 맡아주는 '사회과학관'이라는 명칭이 모두 통용되고 있다. 총보살의 김홍수씨는 '카톨릭학교인 서강대의 고유한 색깔을 인문 독학관이 서강대의 이미지에 오히려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며 학내에서 두 가지 이름이 함께 사용되는 것은 크게 문제되고 있지 않다고 전한다.

"우리말 건물이름은 무엇보다 외대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먼저 쓰여져야 한다"고 김민익(사영·영어 97)군은 말한다. 새내기 시절 신배동로부터 가장 먼저 귀에 달도록 들은 이야기가 복종의 인덕, 노인정, 망각

의 숲 등과 같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애정 어린 명칭에 관한 설명이다. 이것은 어느 표지판에도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무심게 전해져 그것이 오히려 공식적으로 사용되기까지 이른다.

"우선 학내의 여론을 바탕으로 학교측에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이다"고 우리말 연구회 회장 이범현군은 전한다. 기존에 있던 이름, 익숙해진 이름을 바꾸기 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들이 고안되어야 한다. 우선 내부에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것을 시작으로 파급대 이름을 적는 팻말이나 책갈피를 만들어 나누어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파급대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이다. 무엇인가 그에 알맞은 의미를 부여하고 불러주는 것은 이 시인만큼이나 아름다운 일이다.

앞으로 '건물이름 찾기' 운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조금씩 전진할 수 있도록 파급대와 학교측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미니보기 - 우리말 연구회 회장 이범현(상경·경제 00)군



건물이름 지어주기 운동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동계 기간동안 스티커투표를 진행했었다. 충분히 가져 있는 문물임에도 그 때 이후로는 홍보가 부족하여 효를 이어가지 못했다.

우리말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한글이라는 것이 처음엔 오히려 잘 알리지 않고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자주 부르면 우리말의 정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알면 알수록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어렵기는 하지만 재밌고 거기에 빠져든다.

앞으로 이 운동에 대한 계획은
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 1. 2건물에 익숙해져 한꺼번에 인식하고 바꾸기만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운동이 가진 의의나 좋은 점 등에 동의한다면 내부에서도 모범사례로 이름을 바꾸어 불러보았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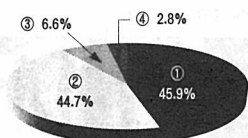
자신이 속한 단체 하나부터라도 실천하여 바꾸어 부른다면 나아가 많은 효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측에도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공식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도 함께 만들어야겠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건물이름 찾기」 설문조사 최종결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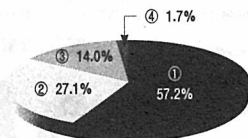
1. 0관 ○ 본관

- ① 비룡관 - 용을 뜻하는 순 우리말
- ② 용문관 - 본관은 학교의 중심이라는 의미
- ③ 할렙터 - 몇몇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뜻
- ④ 무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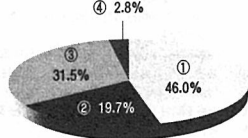
2. 1건물 ○ 인문 과학관

- ① 누리관 - 세계를 뜻하는 순 우리말
- ② 용흥 - 외대의 시초였던 동서양이래 쓰는 건물이라고 하여 새까, 시작이라는 뜻의 용흥
- ③ 지혜마을
- ④ 무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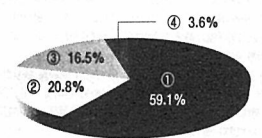
3. 2건물 ○ 시청각 교육원

- ① 소리마을
- ② 더듬이관 - 속삭여 한테가 많이 달려있는 모양을 보고
- ③ 들음관 - 시청각을 우리말로 옮기면 '듣고, 보고'
- ④ 무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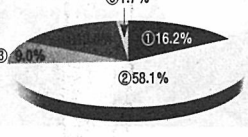
4. 3건물 ○ 사회 과학관

- ① 어우름관 - 사회과학관도 상대, 법대, 사회과학대가 함께 쓰는 건물이름이라는 점으로 여쭙을 모아 한 덩어리나 한판이 되게 한다는 뜻
- ② 무우관 - 여기저기를 뜻함
- ③ 나뭇관 - 새 단체가 나무에 탄다는 점
- ④ 무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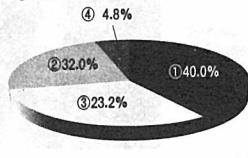
5. 4건물 ○ 학생회관

- ① 장조관 - 학생회관, 동아리연합회 등이 있어서
- ② 열린관 - 24시간 개방된 건물이라는 뜻
- ③ 빛 마을
- ④ 비룡기전 - 곧잘 비룡기들이 날아들어온다고 하여
- ⑤ 무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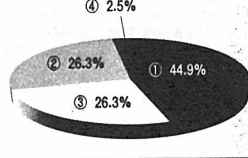
6. 5건물 ○ 학군단

- ① 장성관 - 색색하고 힘차다는 뜻
- ② 다정관 - 굳고 든든하다는 뜻
- ③ 저림관
- ④ 무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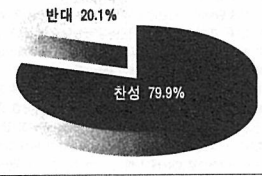


7. 6건물 ○ 대학원

- ① 진리관
- ② 참관
- ③ 참배승관
- ④ 무응답



● 지금의 건물이름을 위와 같이 바꾼다고 한다면...



공 고

2001학년도 제1학기 중간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

-아 래-

1. 시험기간: 2001. 4. 23(월)~4. 27(금)

2. 평가방법:

가. 시험시간표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담당교수 재량으로 실시함.

나. 시험은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하되, 과제물부과, 수업 중 수시평가, 기타 객관적인 방법 등으로 평가함.

2001. 4. 18

교무처장

2001학년도 제1학기 복수전공 이수신청

2001학년도 제1학기 복수전공 이수신청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아 래-

1. 신청기간: 2001. 4. 9(월) - 4. 23(월)

2. 신청장소: 해당대학 교학과

3. 신청자격: 가. 7학기(초기졸업 6학기)까지 제1전공에서 취득한 총성적 평점평균이 2.50이상인 자
나. 제1전공을 8학기(초기졸업 7학기)이내에 이수할 수 있는 자
다. 복수전공 희망학과와 부전공 과목을 18학점이상 취득한 자

4. 제출서류: 가. 복수전공 이수신청서(교학과 비치)
나.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5. 복수전공이수 허가자 발표: 2001년 5월 중 단과대학별 공고

· 복수전공 최소기간을 3/4선 이진 소정기간에 준해 개정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1학년도 제1학기 강의시간표(9쪽) 참조

2001. 4. 18

교무처장

알림

학생취업정보센터에서는 효율적인 취업상담 및 취업추진을 위하여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별 취업진로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아 래-

1. 대상자

가. 기 졸업자중 미취업자
나. 2001년 8월 졸업예정자
다. 2002년 2월 졸업예정자

2. 카드제출기간: 수시

3. 취업진로카드 교부 및 접수처: 학생취업정보센터
가. 서울캠퍼스: 학생지원 1층 (전화 961-4436)
나. 용인캠퍼스: 학생지원 1층 (전화 031-380-1010)

4. 준비물: 증명사진 (3cm×4cm) 1매

2001. 4. 18

학생취업정보센터 소장

공 고

발전캠페인본부에서는 우리 대학과 지역사회 주민의 상호 발전을 위하여 지난 해 11월 지역상가주인 초청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학과 지역 상호발전에 뜻을 함께 한 지역상가들이 학교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에 발전본부에서는 21세기외대발전위원회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외대사랑위원회소를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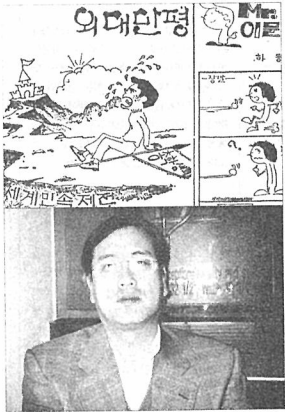
아 래

외대사랑위원회소 명단(가나다순)

상 호	대 표	신 화 번 호
금강산	신정관	968-0303
남강가든	박성민	968-0759
비스타마크	이혜숙	965-0211
우미정	박봉식	963-0191
일송	이정훈	968-7520
청학	송태환	965-7302
워호프	김순학	964-8331

외대발전캠페인본부장

1974년~1977년 외대만평, 하동근 기자(외대학보 22기)



74년부터 77년까지 외대의 언론 곳곳에서는(외대학보, The Argus, 교지) 하동근(외대학보 22기·문화방송 기자)이 그 그림을 찾아 볼 수 있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던 하동근기자는 74년 외대학보의 수습기자생활을 시작하면서 만화와 만평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외대학보의 민화·만평기자로 활동하면서 The Argus와 교지에서 만평 및 삽화 창작이 들어와 급기야 외대의 모든 만화와 만평을 손에 쥐게(?)

되었다고 한다.

유신체제의 말기였던 70년대 중·후반 결핵의 간섭으로 많은 대학신문은 그 당시 사회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그는 "학보사에서서는 실을 수 없는 만평을 The Argus에서는 게재할 수 있는, 정말 검열자 마음대로(?)식의 검열이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신문보다는 학생지의 성격을 띠거나, 고등학교 교지의 수준에 머물고 있던 대학신문에서 그는 대형 만평, 8컷 만화 등 신선한 시도로 외대학보는 많은 외대인의 사랑을 받았다.

그가 처음 시작한 만화 'Mr.이문'의 주인공 이문들은 그 당시 잦은 휴교령을 간파(?) 휴교라고 말하지 못하고 방학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할 때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별'이라는 다소 난독하지만, 적극적인 캐릭터로 바꾼다.

또 그는 기자의 달리 수첩이 불가능한 만화나 만평을 검열을 대비해 언제나 2~3개씩 준비해 항상 휴대했다고도 당시를 회고한다. 하지만 "편들로부터 이런 만평 좋아"라는 말 한마디에 힘이 났다고 덧붙인다. 그는 이런 학보사 생활을 통해 직업언론으로서의 초석을 다져왔다고 한다.

그때의 자신의 작품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는 그는 가끔 그때 그림들을 보면서 예전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린다고 한다.

"장악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청계천 서점을 모조리 뒤지기도 했던 그 때,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싶은 말도 많은 그 시절의 열정이 가끔 그리운다"고 한다. 하지만, 그 때의 창작의 고통을 떠올리면 자기도 놀라 일어난다고 한다. "주인공을 바꾸어가며, 그 당시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그는 웃으며 전한다.

1994년 8월 30일자, 오미나 기자(외대학보 50기)



1994년 8월 30일자 학보는 불과 하루도 되지 전에 들어났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 서태지를 외대학보가 인터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화제가 되었다.

오미나(외대학보 50기·통신연동기)기자가 썼던 이 기사를 많은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제도권 언론에서 볼 수 있는 서태지씨의 어느 인터뷰와는 조금 달랐다. 스타 서태지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닌 '이젠, 통일'을 꿈꾼다는 제목의 이 기사는 통일을 염원하는 '발레

를 꿈꾸며'라는 노래를 발표한 서태지씨의 생각을 들여보는 것이었다.

이 기사는 현재 대학신문이 서태지를 인터뷰했다는 사실 자체와 함께 그 인터뷰 내용 모두가 학생들을 만족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그 당시 그녀는 "실정부터 무리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라고 회상했다.

하지만 '살마 팔개'라는 주위의 열려도 불구하고 그녀는 방송국에 다가는 선배를 통해 "이 인터뷰는 우리보다 당신들에게 더욱 열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며 당당히 인터뷰의 목적을 밝혔다. 그러자 서태지측에서는 처음에는 다소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 인터뷰에 응해주어, 그녀 자신도 조금은 놀랐다고 한다.

쇼트프로그램의 녹화 도중에 진행원이 조금은 긴박했다고 전하는 그녀는 이 인터뷰를 통해 서태지의 통일과 교육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완전 서태지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이를 통해 그의 음악과 그를 더욱 좋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мина는 서태지를 '배우 느낌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현실 도파관인 사람 이야기기 주를 이루는 우리 기요시장에서 사회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서태지 노래들은 정말 반가운 일이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서태지 또한 학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문이 서태지에게 어떤 의미를 추구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게 되어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고마워 할 것이라고 오мина는 확신한다.

그녀는 인터뷰를 마치고 서태지에게 '인정', '꽃다지'의 테이프를 선물했다고 한다. "서태지씨가 테이프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니 한번 더 그를 만나려 기다리고" 하며 웃었다.

1980년 5월 16일자, 이인우 기자(외대학보 27기)



1980년 5월 16일자 외대학보는 군대내 구멍이 난 벽을 신문으로 발행되었다. 계엄령이 내려지고, 언론이 통제를 받아 전국적으로 신문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외대학보는 전국 언론 중, 그 당시를 유일하게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개가 편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다.

본 외대학보는 당초 종군기자단에게 휴간할 예정이었으

나 종군기자 무기연기와 학원사태로 인해 특보를 발간한바다 더 때는 알렸고 그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말해준다. 외대학보 기자였던 이인우(외대학보 27기·한겨레신문 기자)가 회고하면 1980년 서울의 불은 한탄 시가였다. 전두환 정권이 집권했고, 모든 대학이 휴교령이 내려졌었다. 광주에서는 '광주 민주화 항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학생들은 어지러운 나라를 걱정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런 움직임은 외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 5월 14일 외대생들은 서울역에서 있을 연방시위를 위해 교문으로 나섰다. 당시 학보사 사회부 기자였던 이인우 기자 또한 취재에 함께 했다.

"종로에서 경찰을 만나 폭력으로 도망가던 중 병원에서 간신히 몸을 숨길 수 있었다며 너무 세게 쥐고 있어 원기 쓰고 땅에 찢은 화제시위를 떠올렸다. 그러한 노력으로 '역사'를 기록했던 그 신문은 결국 당시 결핵의 원고 사체로 1면자의 부재로 '계엄령' '주장'이라고 써서 처리되고, 2면은 전면 삭제되어 발행되었다.

종군고사도 휴간되었던 그 때 특보라는 호의 신문을 낸 것은 지금 이 사건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자의 감을 맡았기 때문이라든가 그의 기자의 감을 은근히 자랑했다.

그 후 '별로 처리되어 나오지 않은 부분은 학교에 대조보 붙어, 많은 학생들이 원본 그대로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됐다'고 전한다.

그는 지혈해 나 아닌 남을 고민할 수 있던 당시를 떠올려 잊지 못했다고 한다.

미치도록 학보사를 통해 기자의 배역을 맡게 되어 지금도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1995년 3월 21일자, 신동헌 기자(외대학보 49기)



대학신문. 젊은 학생들이 신문을 만드는 곳이라 정말 신선한 시도도 많은 것이다.

가끔은 무모하기까지 한 이런 시도들을 거머쥐면서 학생자들은 많이 좌절한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젊기에 신념하고, 무모함(?) 일들을 시도한다.

95년 3월 21일자 외대학보에는 이런 뜻밖하고도 무모한 시도도 있다.

'미군문제를 당사자인 미군에게 듣는다'는 이 기사는 당시 사회부장인 신동헌(외대학보 49기·인터넷 신문 Unews)기자가 10시간 이상을 거처서 취재한 결과 얻어낸 발과 노력이 땀 기사였다.

이 기사는 당시 불평불만 소파형, 날로 증가하는 미군 범죄에 대해 우리와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었지만 대대적 미군들은 이런 사건들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궁금증에서 이 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한다.

"폭력편으로 영자신문사 기자 2명과 함께 미대원을 다니다, 50명도 넘는 미군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대다수의 미군들은 무심한 말투와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전하는 신동헌은 나중에 회가 나서 'Good bye'라는 인사조차 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한다.

"이무래도 안경적인 취재원을 확보하여 깊이있게 이야기 할 힘들었다"며 인터뷰에서 여러명의 미군이 동조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은 군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못하겠다"는 미군도 많았다고 한다. 주한 미군의 범죄가 1년 평균 2500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잘 모르겠다며 불쾌하게 웃으며 돌아섰던 미군을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기사가 나온 후 '정말 인터뷰를 한 것인가?'라는 물음부터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생각했는가?', '정말 신념이다', '동맹이 누가 있는가?' 등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았다.

"꼭 만족할만한 인터뷰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한 미군을 통해 듣는 미군 범죄 한 기사는 3대이라는 학보기자 생활을 대표하는 기사 중 하나라고 전한다.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그런 도전정신과 배기와 언제나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외대학보가 49년간 외대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그 가끔 나태해질려는 자신을 다그치는 가장 좋은 제책이라고 한다.

1989년 9월 12일자, 박종진 기자(외대학보 39기)



우리학교 본부에는 임수경씨의 변화가 있다. 우유한 인쇄물이 모인 외대, 47년 역사 수에는 출중한 선배들이 많다. 하지만 그 중 가장 임수경씨가 변모로 남았다는 것일까?

94년 방방으로 귀국을 준비해 왔던 임수경씨. 본로이와 89년(외대) 그녀는 외대학보에서 주관하는 89년 외대문과생에게 '94년(외대) 외대문과생에게'가 되어 돌아와서 학보사 기자 박종진(외대학보 39기·인터넷 신문 Unews)에

표와 친해졌다고 한다. 89년 2학기 외대학보에 그녀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그녀는 외대학보 단골 손님이었다.

"그 때 수경이랑 구술투쟁이 외대에서 하루가 멀다고 있었"이라고 박종진 기자는 그녀의 상황을 말한다. 또 그는 사복경찰들이 각 과반과 동아리방을 뒤지고 다닌다 당시의 학교의 삼엄한 분위기를 전했다.

보통 1~2번으로 끝나는 선상과는 달리 임수경씨의 재판은 선상만 10번 정도가 있었다고 한다. 그 때마다 재판장이 가서 취재를 하고 그녀를 지지하는 기사를 썼던 학보사 기자들 또한 경찰들에게 약간의(?) 사들임을 받아야 했다고 한다.

40%의 외대생들이 외대학보를 읽고, 20%의 학생들이 열독자였던 그 때는 외대학보의 기사가 외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났다고 한다. "다른 언론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래서 경찰들이 외대학보를 탄압했"이라고 전한다. 급기야 당시 학보사 편집장이었던 문정완 군이 구속되고 많은 사복들이 압수당하게까지 했다고 한다.

제도권 언론에서는 임수경씨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또 89년 9월 12일자 외대학보에서 알 수 있듯이, 외대생들도 또한 92%가 임수경씨의 방학 활동이 북한의 선전에 이용당했다고 고 생각하고 있었다. "임수경씨가 독일의 폭도로 재조명되게까지 외대학보가 한몫 단단히 했을뿐"이라고 그는 웃으며 말한다.

학사가 활동하면서 지조한 성격으로 화를 때도 있었지만, 자기정화를 고안한, 생애전환 시간으로 그는 학보사 활동시절을 기억했다.

또 그는 학보사 기자들에게 "많은 독자와 고민을 통해 사대주의와 폭력적, 실현력을 모두 가진 기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1998년 1월 18일자, 임승희 기자(외대학보 57기)



100%의 원고지보다 1점의 사진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외대학보 98년 원고지의 교양지인, 당시 사자부 기자였던 임승희(외대학보 57기·타이거 97)는 도사관 정수에서 해업한 바리케이트를 사진으로 찍어 외대학보의 위생관에게 걸음을 걸었다.

임승희는 "학보사로 보내온 제33회와 34회 두년간 도사관 해산 생활이 힘들고 원고를 쓰고 있던 학보사도 도사

으로 생활한 현장을 찍을 수 있었다"며 그 당시 도사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사진과 함께 '대학 당국의 시급한 조치와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사진 설명을 덧붙였던 이 기사는 보도 후, 많은 학생들로부터 '정수기의 실상을 알려줘 고맙다', '임기지의 사진을 보지 못했다면, 계속 바리케이트의 목욕물을 마셨을 것'이라는 등의 격려를 받았다.

그 후 학교측은 정수기에 대한 대대적인 청소와 정수기의 위치 변경이 있었다. "이것은 외대학보의 영향력을 반증하는 것이다"며 그녀는 끝내 학교 당국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녀는 "당시 겨울방학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학보사 기자들이었기에, 이런 재보를 받을 수 있었다"며 학보사는 언제나 열린 공간임을 강조했다.

"노동절(May Day)에서 경찰이 불법으로 노동자를 끌고 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자 경찰이 당황하며 그 노동자를 놓는 장면을 보았다"는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사진의 힘과 기자의 정신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파해도 학보사 활동 중 '50주년 4·3항쟁'을 맞이하여 직접 제두로 내려가 백두대간과 그 현장을 취재했던 이야기를 전하는 임승희는 앞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한다.

98년 외대학보의 편집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 외대학보에 지원한 것이라고 한다.

학보사라는 공간 안에서 현인, 사람에 대한 고민과 많은 토론, 많은 일들이 있는 것도 많았지만 한편도 학보사와 함께 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한다.

그때 그 기자

1989년 4월 11일 창간호, 외대 최고의 언론으로서 자리를 지켜온 외대학보 46년이란 긴 역사속에는 많은 사건들과 그 사건을 펴낸 많은 사람으로 기록한 기사들이 있다. 46주년 외대학보 창간기념을 맞아 본부에서는 역사속에서 깊이 지린 기사와 기사를 만나 그 뜻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제작 : 김한지 기자
yes-brown@hotmail.net

민나보가 한반도 문제 전문가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교수

미, 남북 관계에 평화 공조적 입장 취해야



자신의 소개와 함께, 한국을 보는 기본적인 입장에 관해 간단히 설명한다. 나는 1957년 10월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와서 영어교사로 일한 적이 있다. 그 후 미국으로 돌아가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한국학 과정을 밟았다. 그 전에는 대학원 과정에서 중국 연구에 관심을 경주해 왔으나, 한국이 매력있는 국가로 인식되면서 그런 관심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대중 대통령은 서울이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위협에 가장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및 미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에 비해서도 대북 정책의 변화를 위해 가장 많은 작업을 해 왔다. 김 대통령은 1998년 2월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대북 화해 및 협력의 적극적인 자세를 추구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또한 위생 및 동경에 대한 평화공조의 관계개선 노력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조그마한 화해 노력조차 싫어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임자들보다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또 김 대통령은 50년간 계속된 미국의 대북한 경제봉쇄조치(Embargo)의 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최초의 국가원수이기도 하다. 그는 1998년 9월 미국 방문기간 중 이 요구를 다녔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당시 이 제안에 대해 눈에 볼 정도로 냉담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1999년 9월 미국은 그런 제한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폐시키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김 대통령의 요구를 마침내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김 대통령은 또 어떤 양보도 요구하지 않은 채, 선박을 통해 식량 및 다른 형태의 원조를 제공하면서, 이것이 북한의 경제문제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신중함도 동시에 보여줬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른바 햇볕정책이라 불리는 대북 포용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있는가.

김 대통령은 포용정책의 사람들의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 클린턴 행정부가 김 대통령의 포용정책을 지원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98-1999년에 걸쳐 윌리엄 페리의 주도하에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주요 검토가 이뤄진 후, 미국은 한국의 정책을 지원하게 됐다. 그 후 다수의 진전이 있었는데, 특히 북한 조영목 특사의 미국 방문을 통한 클린턴 대통령 집권과 대북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광양 상 호환문으로 절정에 도달했다. 작년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함으로써, 클린턴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등 향후의 모든 진행사항이 계속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보인다.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2개월 이상 지났다. 남북한 관계, 한미 관계, 그리고 북미관계에 있어 부시 대통령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는가.

클린턴과 남북한 지도자들이 지난 3년 동안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금년 3월초까지만 하더라도 부시 행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서로 의견 차이를 노출시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제2차 남북 정상회담(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정책은 깊은 수렁에 빠졌을 것이다. 평양측에서는 이미 예정된 장관 회담을 갑자기 연기하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까지 관련 협의사항들을 준수해 오지 않았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하여 미국의 대북정책을 최종 결정하기 이전에, 북한 및 한국의 정책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놓여 있는 문제점은 미국 대통령의 광양 방문, 미사일 통제 협정의 입중, 그리고 북한의 한미 미사일 보유량에 대한 조치 등으로 요약된다. 이 문제들을 협상하기 위한 클린턴의 북한 방문이 작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취소됐다.

한미 미군인과 전 세계가 1920년대로 돌아가 아 불 수 있는 비선속적 외교 태도를 지닌 대통령을 접함에 따라, 특정 지도자에 따라 그 리더십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알 수 있다. 김대중은 아마도 달라지는가를 알 수 있다. 김대중은 아마도 달라지는가를 알 수 있다.

대중 대통령의 외교 문명은 지난 3년 동안 북한과의 성공적인 협상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남북 장관회담이 무기한 연기된 것도 미국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그런 태도를 어떻게 분석하는가.

작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북한은 실제로 미국에 대한 선전적 공격행위를 상당히 줄여 왔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전되자, 다시 그런 공세를 재개했을 뿐이다. 내 생각으로는 북한이 부시 행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을 기다려 본 후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평화 축이 보여주는 공세를 가운데 상당수가 전형적인 냉전시대의 수사(修辭)로 이뤄져 있지 않나.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니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생각된다.

부시 행정부는 이미 국가 미사일 방어체계(NMD)의 구축에 대한 희망을 표명했다. 현재 강한 반대 의견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NMD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생각되는가.

미국의 동맹국들이 저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가 그 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의 방위 산업체들이 그 동안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 NMD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전대통령 클린턴이

노동자 비디오

O... 4월 10일 경향이 대우차 노동자를 괴롭힌 장면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확산된 인터넷에 큰 폭을 줬는데...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경찰의 모습이 동영상과 함께 인터넷에 퍼져나갔다고 한다. 이에 우리 크로니클을 네트즌들에게 '알은들 무슨 X할 비디오 같은 것보다 먼저 가여 관심을 가져주세요~'

(출)

O... 신문 고시 부활로 요즘, 편집인 협회에서는 ABC(신문발행부수상사)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이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고 신문고시 부활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우리 크로니클을 'ABC가 안 봐야 할 수 없다고? 그럼 영어학원만 다닌다 되는 거야?'

(원동)



O...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비전향 장기수들의 1차 송환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지난 적십자 회담에서 북측이 2차 송환을 요구하자 정부당국은 '더 이상 송환할 장기수가 없다'고 밝혔다. 데... 그러자 장기수들이 가톨릭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남아있는 송환할 장기수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크로니클을 '이 사람들 모두 투명인인가. 당국측은 논쟁 보여지 않나 보?'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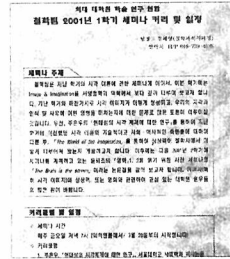
O... 윤인애씨 무기한 수감부에 대해 대한대는 교수회의에서 모 교수는 송학성씨, 부총장학성, 송학성의 사무국장에게 대해 '일부 학생들의 의견을 건반인'을 하고 있다. 개인주의의 캠페를 가장 큰 원인으로 들고 있다. 좋아하는 것을 혼자 즐기고, 공부를 한다더라도 그 공부는 주로 컴퓨터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전공이나 취미에 관련된 것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도 주요한 요인이다.

(하루)

이 교수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자리를 내주고 수감자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소문난 일포

식물 줄 모르는 진보 학술 연구의 의의 (2)



책의 제목은 식물 연구의 의의

책의 제목은 식물 연구의 의의

민나보가 외대 대학원 학술 연구 연합 철학팀장 경혜영씨

민나보가 외대 대학원 학술 연구 연합 철학팀장 경혜영씨

이도르노 미학 이론 팀은 어떤 내용을 다루며

이도르노 미학 이론 팀은 어떤 내용을 다루며



이도르노 미학 이론 팀은 어떤 내용을 다루며

이도르노 미학 이론 팀은 어떤 내용을 다루며

전국 대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

전국 대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

비둘기철학

왕산골

0월입니다

동아리연합회 대표회의
대: 4월 18일(수) 늦은 6시
곳: 공대 206호
주요인사: 전반기 회장, 교비재
(동아리연합회)

모의토의시합
날짜: 4월 18일(수)
시간 및 장소: 11시30분 ~ 3시30분 / 5시40분
(공대 206호) 4시30분(공대 208호)
소요시간: 2시간
비용: 5000원(생생조합원 4000원)
수강생은 무료입니다.

비둘기철학

순발시합에서 장에의 날 기념 '소망' 찬가 가 있습니다.
대: 4월 20일(금) 이른 9시40분
곳: 8호선 남한산성역입구 소망재활원
문의: 구내전화 4408 (순발시합)

인문대 '새날' 정기총회
대: 4월 18일(수) 늦은 5시
곳: 새날방
안건: 올해 활동계획, 문예동논 의
(인문대)

제17회 FBS기요제
대상: 2001.5.19(토)
장소: 참가비 만원, 약보 2순(소망장)
점수: 어문과 207호 FBS실
신청: 4월 13일 ~ 4월 19일
신청: 4월 30일 ~ 5월 1일
부총장배 교내 야구대회
신청: 4월 13일 ~ 4월 19일
신청: 4월 30일 ~ 5월 1일

비둘기철학

참가팀수: 24개팀
참가비: 12만원
대회진행규정: 예선전 각 팀 2게임
본선 토너먼트(8강부터)
시상: (우승) 상금 60만원 및 트로피 (준우승) 상금 30만원 및 트로피
조 추첨 및 문예: 한국외국어대학교 야구부 야구부 UNKON 구내전화 4411 (야구부 UNKON)

문의: 학과 4층 스키부실 02-961-4381 (스키부)

외대 불교학원 수강생 모집
불교에 관심이 있는가요?
그런 여러분도 보세요
문의: 학과 4층 조인 01-0853-9746 (외대 불교학원)

0월입니다

10월 오전 도덕선 5층 열람실에서 MNK팀 은색 경지갑을 분실하였습니다.
소중한 물건들이 많으니 꼭 찾아주세요
연락처: 017-235 9315

4월 13일 새벽 건물에서 의뢰를 분실하였습니다.
NICOL MILLER의 빨간 셔츠입니다
연락처: 016-9511-0702

보도·비전향 장기수 모임 '통일광장' 해오름식과 '네티나무' 공연

아직도 가지 못한 그들을 위하여

말안인들처럼 빨치산 또는 간첩으로만 알려진 비전향 장기수. 이들 중 많은 수가 6·15 남북공동선언 제 3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1차로 북한에 송환되었다. 그러나 지난 적십자 회담 때 북측이 장기수 2차 송환을 요구하자 남측은 '송환할 장기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 정면으로 반박하듯 지난 6일 명동 가톨릭교회 3층에서 미송환 장기수 20여명이 송환

을 희망하는 33명의 명단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여 관심을 모았다.

기자회견에는 공개적으로 전향을 취소한 '전향 장기수'들이 참여해 군사독재 시절의 전향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무효임을 선언했다.

이들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준 것은 이들을 속박했던 사회안전법이나 사상전향제도가 그 위헌성 때문에 이미 폐기되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강제 전향과정과 과정에서 죽은

몇몇 사람들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할하기로 한에 따라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한 모임에서 비전향 장기수들에게 헌정 하는 '네티나무'라는 종합예술국을 기획해 주목을 끌고있다.

이 공연을 기획한 문화예술창원공동체(이하 예창)는 직업예술인이 아니라 기자, 의류업 종사자 등 일반인들이 모여 발족한 모임이다. 공연을 기획한 이유는 간단했다. 비전향 장기수들의 모임인 '통일광장'이 창립행사를 가진다고 하자 그날 공연을 헌정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통일광장의 창립행사와 네티나무의 공연은 지난 15일(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1부에서는 통일광장과 그 후원 모임인 청년통일광장의 출범식이 진행되고 2부에서 네티나무 공연이 열렸다.

1부 행사는 장영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의 환영사로 첫 타이프를 올렸다. 그는 "학교측과 등록금 문제로 싸우느라 행사준비를 충분히 못해 죄송하다"며 "장기수 분들의 모두 송환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뒤를 이은 민중가요 노래대 우리나라의 공연은 객석에 열기를 더해줬다. 다음 순서로 다른 사회단체 대표들의 축사가 이어졌는데 특히 오종철 전국연합 의장은 "장기수들은 온갖 학박과 위유를 견뎌냈다. 그들은 영원한 청년"이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1부 행사가 끝나자 10여 분간의 휴식을 가진



후 2부 네티나무 공연이 바로 이어 시작되었다. 어느새 2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연세대강당이 꽉 들어찼다. 공연이 시작되기 얼마 전 객자 관대비가 시작했는데 객자 뒷면엔 육종에서 문명한 150여명의 장기수 명단이 사람 연도와 함께 실려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공연은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은 해방정국을 거쳐 미군정 때 10월광장에 참여했다가 빨치산이 된 주인공이 토벌대에 붙잡

혀 수감생활을 하면서 겪는 이야기가 줄거리를 이룬다. 할아버지가 된 주인공은 학생운동을 하다 투옥된 대학생들과 만나고 그가 자신의 손자임을 알게되어 자신이 20년 전에 심은 네티나무 아래서 손자에게 가르침을 전수한다.

공연이 끝난 후 장기수 명기남(81)씨에게 관람 소감을 물자. "우리 현상을 정말 잘 보여줬다"며 흡족한 웃었다. 그는 무려 30년 4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한다. 그의 웃음 속엔 세월의 아픔이 묻어났다.

공연 주최측으로부터 받은 전달례 가지 하나를 소중히 들고 옆에 서있던 오기태(72)씨. 21년 3개월을 살았다는 그는 머리 속에 각인이라도 된 듯 수감됐던 날들의 풀려난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98년 12월 23일에 나왔어. 참 고생 많이 했지.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선 저러나는 학생들이 이런 공연을 봐야 하는 데..."라며 말꼬리를 흐리는 그에게서 아픈 사를 본다.

취지문 기자 kicbutt@orgio.net

보도·정치수배 해제촉구 명동성당 농성단을 만나

1년여를 이어온 자유에의 열망

"국가보안법 철폐에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명동성당을 채워진 채 울린다. 내다섯 명의 사람이 유언장을 들고서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지나가는 행인들을 대하는 그들의 표정은 시종일관 미소가 흐르지않은 모습. 길은 안배내로 걸어들어 갔다. 이들의 공식명칭은 '국가보안법 관련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 정치수배자와 민주화실천가족위원회(안심수 후회회)와 공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일 12시부터 7시까지 명동성당 입구에서 농성을 벌이는 중이다.

이들은 얼마 동안이나 이곳에서 농성을 해온 것일까. "작년 4월 10일, 즉 총선 3월전엔 남북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말이 나왔죠. 이런 기회를 놓치면 국가보안법 철폐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성단을 조직해서 그해 5월 17일부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고 말하는 농성단 단장 진재영(94년 전년대 총학생회장)씨. 그는 길옆길 주위에서 사방향을 해 학교에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이적 단체의 수괴를 찬양했다"는 죄목으로 형상금 헌신죄에 수배되어 8년째 수배자로 살고있다. 그들의 농성은 오늘(17일)을 기해 335일째를 맞는다. 앞으로 한 달을 더 채워면 딱 1년이 되는 시간이 다. 한여름의 30도를 넘나들던 폭염과 35도인



의 폭한이라던 겨울 추위에 대항해 지그미한 찬마 하나를 치고 싸우면서도 그들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아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 박자를 가하는 듯하다.

지난 12월(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입구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정치수배 해제 촉구선언'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국의 정치수배자, 가족, 사회단체, 각계인사 70여명이 참여한 이 기자회견에서 농성단은 현 정치수배자의 수와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탄

압실태를 고발했다. 그들이 각 대학교총학생회 및 수배가족 등을 통해 조사한 이 자료에 따르면 김영삼 정권시절 2만명, 김대중 정권시절 145명 등 총 169명인데 여기에는 971 현충원 대의원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농성단 홈페이지인 free2000.org에 방문하면 볼 수 있다.) 이들의 활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보법 논쟁이 한창이던 2월 국회의원간 투쟁에는 폭설 속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감옥을 설치하고 농성을 하였고 거리

캠페인이거나 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시위를 해왔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이산가족 상봉, 비전향 장기수 복속, 경의선 철도복합인 등이 이루어지는 등 사회 전반에 통일의 열기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수배자들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올해 4월까지 무려 40명이 연행됐다. 지칠 줄 모르는 정권의 탄압과 가난한 수배생활. 자신의 유혹은 항상 존재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미 최장기 수배자일 것"이라는 진박은 "난 나의 운동정력을 자랑스레 생각하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자수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수십 년씩 옥고를 치르고 나오는 양심수들도 있지 않은가. 난 그 불문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운동의 성과가 수면위로 부실할 때까지의 시간은 길다. 하지만 그 성과가 가시화되면 큰 촉박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 시범운동에 3만 5천명이 동참했다는 사실. 4천명의 시민과 400여 개 사회단체가 모듬에 한겨레에 광고를 실었다는 사실은 농성단의 노력에 가시화 된 성과를 얻었다는 말일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촉박함을 지나갈 기대해 본다.

취지문 기자 kicbutt@orgio.net

그·빔·타·레 <17>

정현도 기자



출판부 신간안내

● 독일 근대 문학(강정호 교수 / 15,000원)

이 책은 독일 근대 문학에서 고트홀트 에크하르트-바르코르데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구성은 전근대적 문학과 근대적 문학을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이 책은 고트홀트 에크하르트-바르코르데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구성은 전근대적 문학과 근대적 문학을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이런 구성에 의하여 작가의 생애와 작품들을 대별함으로써 그의 역사적 위치, 문학적 위치를 설명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근대 문학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독일 근대 문학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현대 회화(외국어회사리서 12)

이정호 허한(Chunhan) 교수 / 15,000원

이 책은 근대 회화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구성은 전근대적 문학과 근대적 문학을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이 책은 고트홀트 에크하르트-바르코르데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구성은 전근대적 문학과 근대적 문학을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문학적 위치를 설명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근대 문학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독일 근대 문학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알고리즘은 스페인어 관용표현(정재경 교수 / 20,000원)

이 책은 스페인어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구성은 전근대적 문학과 근대적 문학을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이 책은 고트홀트 에크하르트-바르코르데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구성은 전근대적 문학과 근대적 문학을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이런 구성에 의하여 작가의 생애와 작품들을 대별함으로써 그의 역사적 위치, 문학적 위치를 설명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근대 문학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독일 근대 문학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대륙사(강정호 교수 / 15,000원)

이 책은 대륙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구성은 전근대적 문학과 근대적 문학을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이 책은 고트홀트 에크하르트-바르코르데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구성은 전근대적 문학과 근대적 문학을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문학적 위치를 설명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근대 문학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독일 근대 문학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02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 전형

전형일정

- ① 입학원서 교부
2001. 5. 1(화) ~ 5. 17(목)
서울·용인캠퍼스 및 지정교부처
- ② 입학원서 접수
2001. 5. 14(월) ~ 5. 17(목)
서울캠퍼스 입학부, 용인캠퍼스 교무과
- ③ 모집전형일지
국제전문가 특별전형: 2001. 5. 26(토)
자기주도자 특별전형: 2001. 6. 2(토)
학교장추천 특별전형: 2001. 6. 9(토) (1단계 전형 선발자)
- ④ 합격자 발표
학교장추천 특별전형(1단계): 2001. 5. 29(화)
학교장추천 특별전형(2단계) 및 기타 특별전형: 2001. 6. 15(금)
- ⑤ 합격자 등록
2001. 6. 21(목) ~ 6. 22(금)

모집인원 340명

전형 유형	지원 자격 (최저학력 기준)	전형 방법
① 학교장 추천 특별전형 (180명)	2002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부 국어,영어,수학 전과목 성적의 평균이 80.0 이상, 용인캠퍼스 3.25/5.0 이상으로 출석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단계 전형 실시 (1단계: 학생부(국어,영어,수학) 전과목 성적) 모집인원의 200명 선발 (2단계: 학생부) (3단계: 국어,영어,수학) (4단계: 국어,영어,수학)
② 국제전문가 특별전형 (60명)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개 외국어 이상 가능자	고등학교 졸업(50%) + 외국어(40%) + 국문(10%)
③ 수능 우수자 특별전형 (80명)	고등학교 졸업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인문계열: 대학수학능력시험 국문 성적(40%) + 국문(40%) 자연계열: 대학수학능력시험 국문 성적(40%) + 국문(40%)
④ 자기 추천자 특별전형 (20명)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생부에 기재된 자로서 2개 외국어 이상 가능자	고등학교 졸업(50%) + 인문(40%) + 국문(10%) (인문계열 학생부 포함)

특별인터뷰 · MBC 교양제작국 프로듀서 정길화(서반아이 78)

공정한 '의견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언론을 꿈꿉니다

흔히 '대학시절의 폐기처분'을 지우고 사는 것은 쉽지 않다'고들 얘기한다. 모난 돌이 정 맞다는 말도 있듯이 뒤에 올 후회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고 충고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자기 과거에서 소신과 양심을 지우고 사는 것은 멋진 외대인들도 많다. 이에 본보에서는 창간 기념호를 맞아 언론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정길화(서반아이 78) 프로듀서를 만나보았다.

편집자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신문의 폐해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이제 이들을 방관하는 것은 죄악이 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거창한 성립취지를 내건 어느 단체의 발족선언문이 아니다. 선취배전의 천국 도모를 위해 만든 해내 모 동우회 게시판에 게재한 정길화 프로듀서의 글이다.

사적인 모임에서조차 절절한 여론 언론개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그는 평소에는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을까? 토요일 오후 방송국의 분주함을 뒤로 하고 문화방송 4층 시사교양국 로비에서 만난 그는 생각보다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요즘 분란을 새로 짓기 시작했다는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등록금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나요?” 기자가 앞까지 무심하게 신문에서 본 학교소식을 묻는 그의 눈은 학교에 대한 향수로 가득했다.

서반아이와 78학번, 10·36, 12·12 등 한국 현대사의 격변기였던 70년대말~80년대초에 대학을 다닌 그는 스스로를 ‘불행한 시절 역사의 목격자’라고 부른다.

그에게 있어 대학시절은 최후의 내용 가득한 집회장소이자 돌이보면 시대의 암울함을 통탄하며 기사를 쓰고, 학교와 졸업에서 쓴 소수를 돌이켜 보았던 시기였다. 그때부터 특검을 거친 의식은 88년 문화방송사에 입사, 시사교양국 프로듀서로서 ‘인간시대’ PD 수첩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을 연출하면서 프로그램을 통해 반영되기 시작했다.

“저에게 많은 상을 안겨주기도 했던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직접 책임 프로듀서(CP)를 맡아 부담도 컸던 프로그램입니다. ‘실미도 특수부대’ ‘인혁당 사건’ 등 대부분 본사의 진심이 규명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신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란도 각오해야 했구요 또, 시청률에도 신경써지 않을 수 없죠” 이런 난장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언론단체들의 좋은 평가와 지속적인

관심 속에 2001년 새 시리즈를 시작한다. 4월말 경부터 방송예정인 2001년 방송분은 ‘보도연령’ ‘반민특위’ ‘정준하’ ‘자유언론실천선언’ 등 15편이다.

“사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도 우리 방송이 그간 저지른 과오에 대한 보상적 실천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의 밑바닥에는 기성언론에 대한 그의 깊은 반성의 목소리가 자리한다. 지난해 한 월간지에 기고한 그의 글을 보면 이런 생각들이 잘 나타나 있다.

“사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도 우리 방송이 그간 저지른 과오에 대한 보상적 실천의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냉전적 시각으로 전쟁상황을 강조했던 78년 한반도 전쟁위기가, 우리 언론이 보도지침에 굴복해 술한 학생들의 회생을 은폐하거나 참모령을 알려준다는 녹화사건의 회생자들을 다룬 ‘군에 가서 죽은 내 아들이’ 열악한 노동현장의 상황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마침내 분신이라는 극한 상황에 이르러야만 했던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전태일과 그 후’ 등이 모두 우리 언론이 불공정의 길을 걸어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0. 11. 월간 ‘말’ 기고글 중)

이러한 원죄의식 때문일까? 그의 말마따나 ‘열개 프로듀서’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언론개혁 부문에서 왕성한 활동들을 보여왔다. 98년 3월 PD수첩 ‘위기의 한국신문 개혁은 오는가’ 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언론 통제법과 언론인 강제해직 편, 2001년 1월 PD수첩 ‘나시 신문개혁을 말한다’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한 그는 지난 8월(금)에는 ‘언론개혁을 위한 100인 모임’에도 가입했다.

“사실 프로듀서는 프로그램으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막 개혁의 물결이 트인 언론문단에 실질적인 연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임이 결사체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현직 언론관련 단체장들과 일반 시민, 학계 인사 등이 모인 느슨한 연대조직이지요” 실제로 이 100인 모임은 △기자직 개발 △언론사의 근원적인 개선책 마련 △시민단체의 언론감시 등을 목적으로 한 언론인들의 자생적인 목소리가 모인 조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신문에 대한 방송의 편파적인 비난이 아니냐는 시각이 바로 그것. 정 프로듀서의 방송이 나간 이후 조선·동아 등 주요 일간지에서는 신문개혁에 대한 논의들에 대해 ‘여권을 통해 얻은 신문 죽이기’라고 대응해 왔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방송과 신문간의 상호비판·견제입니다. 방송의 경우 내부개혁이나 PD연합회, 방송노조 등 직능단체의 활동을 통해 어느정도 개혁의 성과가 있었던 반면, 신문은 아직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독재정권 시절 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했던 방송이 참해왔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신문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두 매체간 이권다툼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변할 것을 촉구하는 몸부림이라는 것을 알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시달림’ 탓에 정 프로듀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덧붙여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언론에 대한 견해도 제시한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방송과 신문간의 상호비판·견제입니다. 언론개혁운동은 두 매체간 이권다툼이 아닌, 본질적 변화를 시도하는 몸부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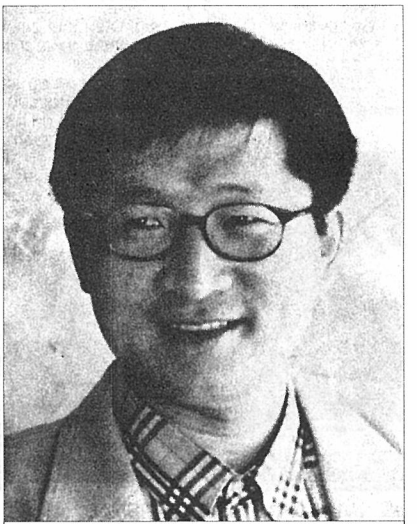
“공정한 ‘의견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언론이 되길 바랍니다. 독점자본의 굴림공제, 권력, 색깔론 등으로 언론을 도구화하는 역사는 이제 종결이 되어갔지요. 여기에는 독자, 시청자들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자기 소신이 분명한 그에게 쫓는 어려움도 있다. “저의 프로그램이 대부분 시의에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회사(MBC)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역풍’을 당할 수 있는 빌미가 되나니까요”

하지만 강준만 교수가 저서 ‘인물과 사상’에서 “꼭살이고 성실하며 방송에 대해서는 완벽성을 추구하는 프로듀서”라고 그를 평가했듯 올바른 언론을 회구하는 그의 열정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남북관계개선에 일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는 그는 마지막으로 후배 대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

“가볍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볍다는 것은 좀 더 자유롭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덜 고민하며 산다는 이야기죠. 대학 시절에만 할 수 있는 진지한 고민들이 아닙니다. 물론 대학인들을 소비적으로 만들고 인양만을 추구하게 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불’에서 헤어 나와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선배로서 저의 조그만 바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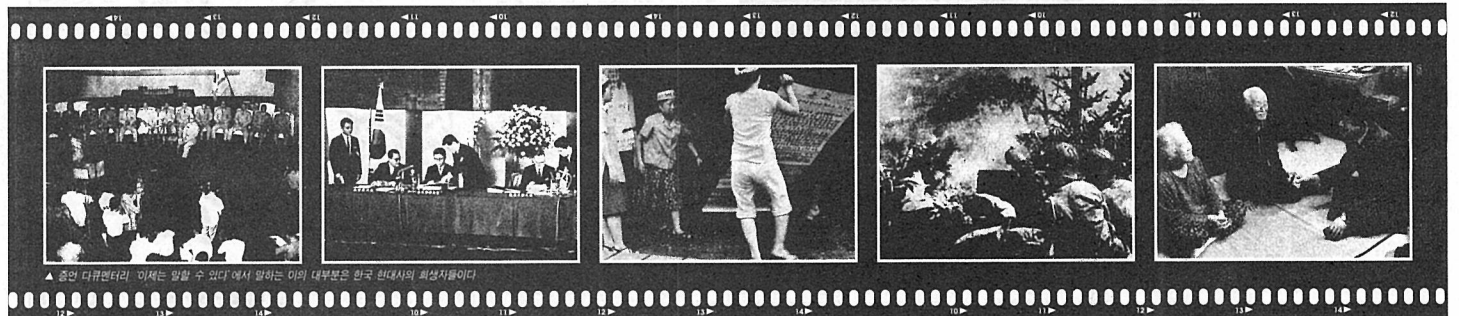


약력

1959년 경남 마산 출생
1978년 우리학교 서반아이과 입학
1978년 외대학보사 입사
1980년 외대학보 기획부장, 논설위원 역임
1984년 문화방송(MBC) 입사
1999년 12대 PD 연합회장 역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 연출
통일언론상, 엠넷시 언론상, 한국기자상 특별상, 올해의 프로듀서 상 수상
현재 문화방송 교양제작국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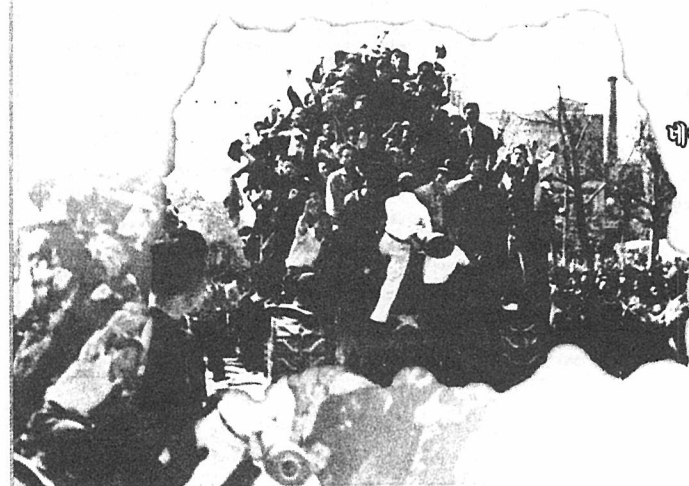
장서문 기자

oeds98@hanmail.net



▲ 종란 다류면리터.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말하는 이의 대부분은 한국 현대사의 희생자들이다

사월혁명은 계속됩니다



숨죽여 호느끼며
네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에 만세

-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김주열 열사의 죽음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승만정권의 독재
허리잘린 조국

숨죽여 호느끼며 써야 했던
‘민주주의’ 라는 말을
‘통일’ 이라는 말을
이제는 가슴속에 깊이 새겨봅니다

양 배움터 4·19기념 마라톤대회
- 서울배움터(외대~유이동 4·19국립묘지)
12시 노천극장집결
- 용인배움터(학생회관~모현입구)
학생회관 앞 집결 (시간후후 공고)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